

잘 듣고 생각하고 말함이 부처님 만나는 길

종산 스님 등 불교 지도자 봉축법어 · 봉축사 발표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단 지도자들의 봉축법어와 봉축사가 잇따라 발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6일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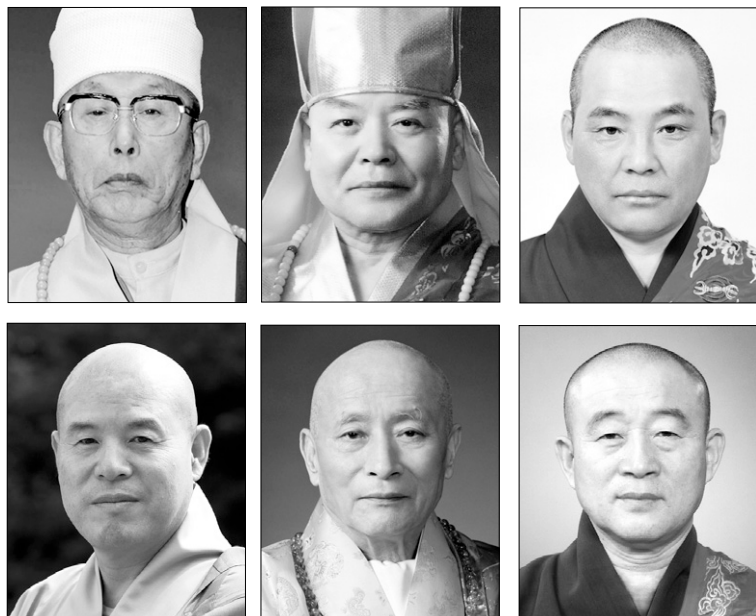
스님은 봉축법어에서 "부처님은 중생의 구제를 위해 오신 분"이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은 참으로 좋은 날, 즐거운 날, 기쁜 날이다. 모두가 두 손 합장하고 다 함께 부처님 오신 뜻을 세우는 공양을 올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봉축법어에서 "잘 듣고 생각하고 말해 통하면 부처님을 만난다"며 "겸손하고 진솔하게 남의 말도 잘 듣고 생각을 깊이 해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어느 틈에 부처님이 곁에 와서 활짝 웃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세월은 물거품 같고 번개볼 같이 무량겁의 바람을 밟아 이뤄지고 쓰러지기 어려울 불명과 발우로 탁발해서 부처와 조사를 다시 탐구하니 여러번 쓰러지고 일어난 이치는 생가지도 멸하지도 않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했다.

전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3일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님 오신 참 뜻은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선언하고 실현한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기도하고



(왼쪽 좌측부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전태종 종정 도용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전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노력하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고 탐욕이 없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위해 등불을 밝혀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봉축의 기쁨을 나누자"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일 불기2554년 봉축사를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등불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삼아 여일한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하여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

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꽃은 잎이 되고 그 잎은 다시 꽃이 되는 5월, 낮에는 신록이 산하를 장엄하고 밤에는 연등이 천지를 밝히니 천등만화가 부처님오신날을 환희로움으로 경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사물팔방 소통으로 막힌 곳이 없으니 남녀노소와 내외좌우가 언제나 화합의 광장에서 춤을 추고, 나눔의 강물이 사해로 흐르고 흘러 소의 된 이웃이 없으니 동포와 다문화 가정

이 모두 일가를 이룬다"며 소통과 나눔을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6일 봉축사를 통해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일체중생의 행복과 영원한 자유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며 "불교는 일상생활에서 수행과 전법을 통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실천의 종교이자 생활의 종교"라고 말했다.

스님은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고 삶의 순간마다 깨어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깨달음을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3일 전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은 나와 네가 다르지 않고 우리가 다르지 않으며 더 나아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아 일체중생이 다 나의 아들임을 열어 보인 분"이라면서 "부처님은 몸으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고, 마음으로는 걱정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응어리진 우리 중생에게 본래 늙고 죽을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가르쳐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며 세상의 모든 초목과 미천한 미물들이다. 그리고 나와 절대 다르지 않은 부처이다. 사월초파일, 꽃바람에 타고 실려 온 이 거룩한 소식에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합장하자"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제안

미국에 필요한 포교전략 세 가지

미국인 약 3억 명 중 300만 명 정도가 세계를 5000만 명 정도가 명상(부디스트, 크리스찬, 부디스트 카톨릭 등 포함)을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불교와 명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었다고 있다. 재미 교포가 200만 명 정도이며, 이중 약 3%(6000여 명)가 불자로 추산된다. 이들 중 70~80%가 서양종교에 귀의해 활동하고 있다.

미국 내 한국불교는 그동안 서경보·법안·도안·승산 스님과 같은 선지식이 개척해 놓은 업적을 계승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에 한국불교 포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재미교포와 미국인을 상대로 한국불교를 널리 알릴 공간이 필요하다. 즉 철야기도, 새벽기도, 응명정진 등으로 365일 24시간 교포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조계종 지역 '미국종합포교센터'를 개원해야 한다.

'미국종합포교센터' 건설을 위해 조계종이 인적·재정적 지원을 책임지고 직영으로 주관하면서 권장한다면 국내·외 불자가 심시일만으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점차적으로 '조계종미주종합포교센터'는 미주지역은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지역까지 확대 나갈 수 있는 해외포교센터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포교센터 주지스님 임기는 4~5년 단임제가 좋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주지스님이 포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 등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스님을 의뢰할 수 있는 전법사 및 종무행정포교사

도 필요하다.

두 번째, 전법사 및 종무행정포교사 양성을 위해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조계종 미국전법사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을 현장에 투입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재교육과 수행과정을 거친다면 전 미주는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파견시킬 수 있는 한국포교포교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교포와 미국인 대상으로 '불교복지 자원봉사자'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사회의 종교문화적 다양성 환경 속에서 불교복지봉사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포 가족에게 효과적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 가는 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조계종 지역 종합포교센터가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수행력과 도덕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스님이야말로 재가자들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덕목을 가진 스님과 전법사, 복지자원봉사자들이 포교센터를 운영한다면 분명히 해외교포가족과 현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주리라 확신한다.

종합포교센터 개원

전법사단 출범시켜야

불교복지자원 봉사자 양성

최명규

미국워싱턴DC교리대 불자교우회 고문 행정학 박사



중앙승가대 공양물 기록 전무

제88차 이사회의서 감사결과 지적

사찰 재정 투명화가 사회이슈화가 된 가운데 중앙승가대 전국 사찰 등에서 시주받은 공양물에 관련한 기록물을 전혀 남기고 있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이 5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88차 이사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감사 덕관 스님은 "감사 결과 부식물 등 보시 내역에 대한 기록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학교 장부에 공양물을 일일이 기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고, 영담 스님(총무부장)은 "학교 재정과목에서 교비와 기숙사비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

언했다.

결산 감사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에 △총무처장 월우 스님의 유급 안거 문제 △학교후원 관리 부실 △회계상 예산 전용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시 비용절감 내역 허위보고 △법인카드 사용 △교직원 처우개선 등이 지적됐다.

이어 임원 선임의 건에서는 종하 스님 후임으로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을 당선자, 정림 스님 후임으로 동문회장 원정 스님이 이사 선임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감사보고를 포함한 2009년 법안 및 대학 자금운영 결산 심의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됐다.

조동섭 기자



진흥원, 봉축위에 5000만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5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축위원회 위원장 자승 스님에게 봉축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민병천 이사장에게 "진흥원 일은 잘 마무리 됩니까?"라고 물었고, 민 이사장은 스님에게 "잘되었죠"라고 답했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진흥원 기획실장 신진욱 박사가 배석한 회동에서는 주로 연등제 이야기가 오갔다.

조동섭 기자

4대강 반대 한목소리

청화 스님 초청 대법회

경기지역 청년 불자들이 4대강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회장 이호광)은 5월 8일 수원시 만발보전에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와 불교발전을 위한 청화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했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파괴되는 생명과 환경문제를 돌이키고, 불교청년 및 재가단체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행사에는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 순화교 민주당 대표, 김진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종지협 공동대표의장

이광선 목사 추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제9대 공동대표 의장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추대됐다.

종지협은 5월 3일 성북구 삼정각에서 열린 제13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9대 의장 이광선 목사는 사학법 때문에 휩싸였던 2006~2007년 통합 제9회 총회장으로서 재계정 운동에 앞장서 왔다. 사학법 문제 등 교계와 한국사회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힌 그는 이 목사가 종지협 의장에 추대됨에 따라 종지협의 행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연 기자

원효학연구원 논문공고

원효학연구원 논문공모원효학연구원에서는 원효성사의 불교사상과 종교적 실천정신을 따르고 선양하기 위하여, 매년 『원효학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연중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채택되는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원효학연구』에 게재하여 연구업적을 기리어드리겠습니다.

- ◆ 응모자격
불교학 또는 불교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과정 이상의 학자
- ◆ 논문공모
분야불교학 및 불교와 관련된 분야
- ◆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계획서: 연중 모집 / 제출 방법: E-mail 또는 우편
- ◆ 심사 및 결과통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개별통지
- ◆ 채택된 논문제출 기한
논문제출마감: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 문의 및 제출처주소 : 780-110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2번지 분황사 원효학연구원당 : 윤혁권 교수 (원효학사무국장)
m.p 010-3598-7658 ☎ 054)770-2129 / 팩스번호 : 054)771-9850
E-mail: slms@hanmail.net / agatalee@hanafos.com (두 곳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 www.wonhyo.or.kr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병화·금교·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